

환갑여행 대신 모교 발전기금 쾌척 '훈훈'

김형석 광주 첨단우리병원 대표원장 전남대에 3천600만원...가족들 동참 "후배들 더 좋은 환경서 꿈 키워가길"

환갑을 맞은 전남대 동문이 여행 대신 자녀들과 함께 모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모교 사랑을 실천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김형석 첨단우리병원 대표원장이 최근 대학 발전기금 3천6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원장의 생일 당일 이뤄진 발전기금 전달식은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김형석 원장 및 가족, 김용환 팔벌동물병원 원장(전남대 수의대 동창회장), 김영백 첨단우리병원 원무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쁘게 진행했다.



김형석(사진 왼쪽 세 번째) 광주 첨단우리병원 대표원장이 최근 모교 전남대에 발전기금 3천600만원을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당 발전기금은 환갑을 맞은 김 원장이 여행 대신 배우자, 아들·딸과 뜻을 모아 함께 마련했다. <전남대학교 제공>

이번 기부는 김 원장이 환갑을 맞아 지난 60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과 가족에게 큰 힘이 돼 준 모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여행이나 잔치 대신 기부를 선택한 김 원장은

배우자와 뜻을 함께해 3천만원을 모았으며, 자녀들도 이에 동참해 아들과 딸이 각각 300만원씩 보탬을 보냈다.

김 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과 8학번으로

로,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우리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성 척추질환과 허리디스크 미세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활발한 진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석 원장은 "모교에서의 배움과 인연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큰 밑거름이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근배 총장은 "평소 후배 사랑이 남다르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모교 사랑을 실천해 주신 김형석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담양 봉산면 지사협, 취약계층 반찬 나눔

담양군은 10일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취약계층 50가구에 봉산면 이음반찬 나눔 활동을 통해 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년 300여만원을 후원하는 '담양애꽃'의 기부로 마련된 반찬나눔 사업은 8개 사회단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접 밑반찬을 조리하고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지역 특화 사업이다.

이번 나눔은 봉산면 여성자율방범대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대원들은 보양식인 추어탕과 찜장을 정성껏 만들어 인근 두릅마을 식당에서 기탁한 것 같 등 반찬 2종을 함께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 북부경찰 우산지구대·자율방범대 순찰

광주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는 10일 "전날 오후 8시에 북부 자율방범연합대·우산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관내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근린공원과 인적이 드문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였다.

임동준 우산지구대 3팀장은 "안전한 우리 동네 조성과 주민 제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협력 치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장흥 관산파출소, 학교폭력 예방 활동

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는 지난 9일 관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협력단체인 관산(여)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방지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 제작·유통 등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한승국 파출소장은 "학교 및 협력단체와 협업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기자



구례소방, 산불 대비 소방용수시설 점검

구례소방서는 지난 9일 봄철 건조기 산불에 대비해 산림 인접 마을을 중심으로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과 주민 대상 초기 진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침하로 인한 소방용수시설의 누수와 균열,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손이 확인된 시설은 즉각 정비해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례=김세중기자

"어린이 환자 해맑은 모습 보면 힘이 납니다"

전남대병원 '라라커피' 임지원 대표 2023년 오픈 이후 환자 치료비 등 후원 '키다리 이모'로 불려... "행복한 기부 계속"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조그만 몸으로 치료를 견뎌내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과자 꾸러미를 선물할 때, 그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오려려 더 큰 뿌듯함과 힘을 얻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라라커피'의 임지원 대표는 2023년 카페 개점과 동시에 어린이병원에 기부하며 단순 카페를 넘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에서 라라커피를 운영 중인 임지원(왼쪽 두 번째) 대표가 최근 듀센군이 양증(DMD)으로 투병 중인 최한결(왼쪽 세 번째)씨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남대학교병원 제공>

임 대표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환자들에게는 '키다리 이모'로, 병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나눔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임 대표는 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위해 과자와 주스, 떡을 가득 담은 꾸러미를 수시로 전달(총 200만원 상당)하고 희귀질환 환아들의 치료비로 300만원을 쾌척했다. 또 저소득층 환자 가정

을 위해 쌀과 잡곡(총 110kg 상당)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다. 임 대표는 환아들의 '꿈'과 '자랑'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하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장다인)가 직접 쓴 손뜨개 인형과 키홀더를 카페 내에서 대신 판매해 수익금 78만원을 전달했다.

임 대표는 지난달 25일 듀센군이 양증(DMD)으로 투병 중인 최한결씨에게 100만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그는 최근 어린이병원 1층 로비 등에서 열린 최씨의 미술 작품 전시회가 끝난 후 자신의 카페 한쪽 벽면을 최씨의 작품으로 채웠다. 판매 대행을 자처하며 직접 구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한결씨의 작품을 통해 손님들에게는 감동을, 한결씨에게는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임지원 대표는 10일 "그저 아이들이 병실 안에서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뜨개를 하며 희망을 놓지 않도록 저는 여기서 계속 커피를 내리며 행복한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미소 지었다. /기수희기자



보성경찰, 신학기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보성경찰서는 10일 "신학기를 맞아 보성초등학교와 보성남초등학교 일원에서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성군, 보성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마약과 도박,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보성=임병연기자

또한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홍보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신원수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제철, 지역사회 동행 '올해 첫 연합 봉사활동'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영동 일대에서 광양시와 함께 지역 이웃들을 위한 '2026년 첫 연합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연합 봉사활동은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고유의 문화인 봉사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산하 재능봉사단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활동에는 권향엽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 고재운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40개와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새마을부녀회, 광영동 주민자치회, 광양시 작은나눔회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봉사단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벽지 도배와 도색, 전기 및 가전제품 수리, 방진망 교체, 방역 작업 등을 실시했다.

또 마을 곳곳에 전용 부스를 설치해 네일아트, 음료 및 다과 제공, 장수 사진 촬영 등 재능기부를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재운 광양제철소장은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제철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경찰, 폐업 시설 일대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여수경찰서는 "최근 학교전담팀이 폐업 후 방치된 성심병원 장례식장 일대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신학기를 맞아 흥가 체임 등으로 유명해진 지역 내 장기 방치 시설을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장소는 2018년 7월 휴업 이후 공포 체임 유튜브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가출 및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경찰은 집중 탐문 순찰을 통해 파손된 출입문과 외벽 낙서 등 방범 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시설 개선을 통보할 방침이다. /여수=김진선기자



또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원석 경찰서장은 "다각적인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북구 '제2기 부끄러이더' 위촉 광주 북구는 10일 구청사 소회의실에서 이영동 부구청장과 부끄러이더, 온라인소통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북구 정 책을 창의적이고 코믹하게 재구성한 스케치코미디 형식의 구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제2기 부끄러이더 위촉식을 가졌다. <광주북구 제공>